

## 모윤숙 초기시의 심상지리 연구

- 민족주의, 제국주의, 센티멘털리즘을 중심으로

김 옥 성\*

### [국문초록]

『빛나는 지역』은 문제적인 시집이다. 이를 계기로 모윤숙이 '조선 최초 여성시인'으로 규정될 만큼 1세대 여성 시인의 작품에 비해 비약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중요성에 비해 이 시집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본고는 심상지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민족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센티멘털리즘의 양상과 의미를 조명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점을 밝혔다. 첫째, 구약적 심상지리에 투영된 기독교 민족주의에 제국주의와 세속적인 욕망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전장의 심상지리에는 진화론적 힘의 논리에 입각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얽혀있다는 점이다. 셋째, 간도의 심상지리는 피상적인 국토 인식과 주체 분열 등의 문제점을 선명하게 노출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현대시에 간도 체험을 선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의의도 지닌다. 넷째, 초기시의 민족주의는 제국의 계략을 간파하지 못한 낡은 민족주의이다. 표면적

\* 단국대학교 국문과 교수

주제어: 모윤숙, 빛나는 지역, 심상지리, 민족주의, 제국주의, 센티멘털리즘, 구약, 전장, 간도

Mo Yun-sook, *Shinning Region*, imaginative geography, nationalism, imperialism, sentimentalism, the Old Testament, battlefield, Gando(間島)

으로는 저항적 색채를 띠지만, 심층적으로는 제국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모운숙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대적 한계의 성격도 갖는다. 다섯째, 민족주의와 함께 센터멘털리즘은 초기시의 다른 한 축, 사적 주체의 영역을 표상한다는 점이다. 민족주의가 공적 주체의 페르조나를 반영한 것이라면, 센터멘털리즘은 사적 주체의 내면에 가까운 것이다. 그의 시의 본질은 전자보다는 오히려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의 센터멘털리즘은 사적 감정과 여성시의 미학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적인 차원에서 의미심장하다. 선행 연구가 대체로 전자에 치우친 만큼 후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1. 서론

본고는 모운숙의 첫 시집 『빛나는 지역』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1) 모운숙 시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생애와 작품이 포괄적으로 조망되었으며,<sup>2)</sup> 민족의식과 여성의식, 기독교 사상, 자연 지향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sup>3)</sup> 한편으로는 친일행적과 파시즘, 국가주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sup>4)</sup> 이

1) 본고에서 초기시는 『빛나는 지역』(1933)에 수록된 시편들을 의미한다.

2) 송영순(1997), 『모운숙 시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3) 송영순(2003), 「모운숙 시에 나타난 전쟁과 여성의식」,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김승구(2006), 「모운숙 시에 나타난 여성과 민족의 관련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김한식(2008), 「여류 문인 모운숙과 왜곡된 모성-한국문단의 민족주의에 대한 고찰2」, 『겨레어문학』 40, 겨레어문학회; 김용직(2009), 「민족의식과 예술성—모운숙론」, 최동호, 송영순 편 『모운숙 시전집』, 서울: 서경시학; 김옥성(2013), 「모운숙 시의 종말론적 사유와 자연 지향성」, 『어문학』 120, 한국어문학회.

4) 장하진(1990), 「여류명사들의 친일행적」, 『역사비평』 11, 역사비평사; 김효신(2011), 「1930년대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파시즘 양상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57, 한국사

러한 연구들은 우리 시사에서 모운숙 시가 갖는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상당 부분을 밝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문제들이 있다. 선행 연구들도 지적하듯이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60년 가까운 그의 시력(詩歷)은 우리 시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시사의 차원에서 그의 문학사적 의미는 두드러진다. 그는 노천명과 함께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 등의 뒤를 이은 대표적인 2세대 여성 시인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1세대에 비한다면 모운숙의 가시적인 성과는 비약적인 것이었다. 첫시집, 『빛나는 지역』의 출간 직후 문단의 반응은 그를 ‘조선 최초의 현대적 여성시인으로 규정할 정도로 뜨거웠다.’<sup>5)</sup> 그만큼 우리 문학사 차원에서 문제적인 시집이다. 뿐만 아니라 모운숙이 대일 협력으로 전향하기 이전 민족주의적 열정으로 충만한 시기의 시집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특히, 저항시가 위축된 시기에 비교적 강하게 저항적 색채를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빛나는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물론 모운숙의 시세계를 폭넓게 다루는 과정에서 종종 언급되기는 했지만, 이 시

상문화학회; 공임순(2008), 「스캔들과 반공」, 『한국근대문학연구』 17, 한국근대문학학회; 이기성(2009), 『국가와 청춘-모운숙 시에 나타난 내셔널리즘과 사랑』, 『현대문학의 연구』 38, 한국문학연구학회; 서동수(2010), 『모운숙의 피난 체험과 도강파의 글쓰기』, 『한국문예비평연구』 33,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5) 이러한 당대의 평가는 김활란, 이광수, 김기림, 박용철 등의 글에 잘 나타난다. 김활란은 “여성으로서 우리 詩文壇에 加一層 새로운 貢獻”이며, “梨花專門 文科出身으로 世上에 내어놓는 첫소리”라고 평가한다. 이광수는 “朝鮮말을 가지고 朝鮮民族의 마음을 읊은 女詩人으로는 아마 毛允淑 女士가 처음일 것이다”라고 평가한다. 김기림은 “조선이 가진 오직 하나뿐인 여류시인”이라 평가한다. 박용철 또한 『빛나는 지역』을 당대 여성시의 성과 중 가장 돋보이는 시집으로 자리매김한다. 김활란, 「序」, 『빛나는 지역』, pp. 1-2; 이광수, 「序」, 『빛나는 지역』, pp. 3-5; 김기림 (1933.10.29.-10.31.), 『모운숙의 「리리시썸」, 시집 『빛나는 지역』을 읽고』, 『조선일보』(『김기림 전집』 2, pp. 367-369); 박용철, 『여류시의 총평』, 『신가정』 1934.2. (『박용철 전집』 2, pp. 125-140).

집이 갖는 특수한 의미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집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대의 문학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집에 대한 당대의 뜨거운 반응은 민족주의와 센터멘털리즘이라는 두 차원에 초점이 모아진다.

우선, 『빛나는 지역』에 대한 가장 호의적인 평가는 피식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민족의식을 담아냈다는 것이다. 김활란은 “우리 環境의 悲蒼한 여러 事實”, “서러운 場面”에 영향을 받았으며, “眞實한 곳에 根據한 豫言的 暗示”를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6)</sup>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밝은 미래를 예언적으로 암시하는 시로 평가한 것이다. 이광수는 “朝鮮 말을 가지고 朝鮮 民族의 마음을 읊은 女詩人”으로는 모운숙이 최초이며, “女士는 朝鮮의 땅을 ‘안으려’ 하는 詩人”이라 고평한다.<sup>7)</sup> 이전에도 여성 시인은 있었지만, 조선의 언어로 조선의 정신을 표현한 본격적인 시인으로는 모운숙이 최초라는 평가이다.

이화여전 은사인 김상용은 『빛나는 지역』의 민족의식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그는 “朝鮮의 빛나는 앞길을 어두운 現實의 彼方に 본 것이다”, “悲憤의 今日에서 喜悅의 明日을 기다리는 우리의 抒情詩人이다”라고 상찬한다.<sup>8)</sup> 김기림은 비교적 암시적으로 호평한다. 그는 모운숙의 센터멘털리즘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도의 대표적인 여성 민족주의 시인 나이두와 비교하면서 ‘빛나는 지역’ 계열의 민족주의적 색채의 작품들에 호의를 보인다.<sup>9)</sup>

모운숙은 인도의 민족주의 시인 사로지니 나이두를 전범으로 삼고 조선의 나이두를 자임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나이두가 간디의 보조자 역할

6) 김활란, 「序」, 『빛나는 지역』, pp. 1-2.

7) 이광수, 「序」, 『빛나는 지역』, pp. 3-5.

8) 김상용(1933.10.22), 「영운시집 독후감」, 『동아일보』.

9) 김기림(1933.10.29.-10.31), 「모운숙의 「리리시즘」, 시집 『빛나는 지역』을 읽고」, 『조선일보』(『김기림 전집』 2, p. 367.)

을 했던 것과 유사하게 모운숙은 안창호, 이광수의 보조자가 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민족주의는 이광수의 준비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일 협력의 행적 또한 이광수의 노선과 상당히 겹친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평가는 대부분 표현의 미숙함과 함께 센터멘탈리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화여전 은사인 변영로는 시상이 풍부하고 분방한 장점과 더불어, “애상적이고 지내치게 서정적인데다가 말이 부퍼서 부정확한 표현과 용어가 많다”는 흠결을 지적한다.<sup>11)</sup> 김기림은 “센터멘탈리즘의 유혹은 시인 모운숙씨가 그의 예술을 살리기 위하여는 한사코 극복하여야 할 장애”이며,<sup>12)</sup> 『빛나는 지역』은 “센터멘탈리즘의 범람”<sup>13)</sup>을 대표한다고 비판한다. 양주동은 김상용, 김기림, 이광수 등의 평설이 『빛나는 지역』을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황당한 수사”, “과

10) 김기림의 지적처럼 모운숙 작품 중 일부는 나이두의 영향이 잘 드러난다. 그러한 작품들은 단순한 모방이나 표절로 보기 어려운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면이 존재한다. 모운숙은 여러 글을 통해 일찍부터 사로지니 나이두를 사숙하였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가령, 『인도 시인 나이두 여사와 나』에서는 “내가 십 칠살 세 적에 가장 사숙하던 작가는 톨스토이, 에이츠, 나이두였다.”라고 말한다(『영운 모운숙 문학전집』 4, p. 111). 『회상의 창가에서』에서는 “나는 인도의 사로지니 나이두의 『부러진 죽지』라는 시를 즐겨 읽었다. 영국의 통치 밑에서 부르짖은 인도의 저항을 시로 읊은 것이었다. 나는 거기서 감미로운 비애를 느꼈다.”라고 적고 있다(『영운 모운숙 문학전집』 6, p. 121).

『동아일보』에 의하면 사로지는 나이두는 1949년 3월 1일 사망하였다(『떠러진 인도의 달, 나이두 여사 영면』, 『동아일보』 1949.3.4). 모운숙은 1949년 3월 5일 추모글에서 “그저께” 편지를 붙이고 나서 “오늘” 나이두의 부음을 들었다는 안타까움을 밝힌다. 추모글에 따르면 모운숙은 1949년 1월 인도를 방문하여 네루 수상과 나이두를 만나고 돌아온 바 있다(모운숙(1949.3.5.-3.6), 『가신 나이두 여사에게』, 『동아일보』).

11) 변영로(1933.11.8), 『巖雲詩集을 읽고』, 『동아일보』.

12) 김기림(1933.10.29.-10.31), 『모운숙의 『리리시즘』, 시집 『빛나는 지역』을 읽고』, 『조선일보』(『김기림 전집』 2, p. 368).

13) 김기림(1933.12.7.~12.13), 『1933년의 시단의 회고와 전망』, 『조선일보』(김기림, 『1933년 시단의 회고』, 『김기림 전집』 2, p. 59).

정(過情)" 등을 지적한다.<sup>14)</sup>

이러한 센티멘털리즘 비판은 당대 문학장의 감정론에서 생성된 것이다. 1910년대와 2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문학사에서 민족주의적인 감정은 정당한 감정으로 장려되고, 개인적인 감정은 '과잉'으로 폄하된다. 특히 1920년대에는 성담론과 결부되어 남성적 감정은 "보편적이고 의에 강하며", 여성적인 감정은 "감상(感傷)과 퇴폐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설명된다.<sup>15)</sup>

1930년대에는 그러한 감정론이 계승되면서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대두된다. 김기림은 센티멘털리즘을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성담론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불쾌감을 드러낸다.<sup>16)</sup> 나아가 박용철은 센티멘털리즘의 가치를 적극 옹호한다. 그는 센티멘털리즘을 프랑스 혁명 이후 "개인자유주의"의 "감정해방과 개성강조의 원칙"에 연결시켜 모운숙 시의 "감상성"을 문제 삼는 것은 "시대의 역행"이라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어느 남자비평가가 우리는 앞으로 서정시는 여자에게 미루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한 일" 등을 예로 들면서 여성시의 밝은 전망을 제시하면서, "조선의 여류시인들은 조선의 서정시를 자기네들의 손으로 건설하겠다는 기개를 가져야"한다고 제안한다.<sup>17)</sup>

박용철의 논의는 민족주의의 이면에 가려진 '개인주의'라는 또 다른 가치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모운숙은 민족적 감정과 개인적 감정을 두 기둥으로 삼고 자신의 시세계를 건설했다고 볼 수 있다.

14) 양주동(1933.12), 『1933년도 시단년평』, 『신동아』.

15) 박숙자(2006), 『근대문학의 형성과 감정론: '감정과잉'의 문학사적 평가와 관련하여』,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6) "시인 모운숙씨에 대하여는 그전부터도 과소평가와 과대평가가 기이하게도 함께 있어 왔다. 그 양쪽의 원인이 모두 그가 여성이라고 하는 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불유쾌한 일이다." 김기림(1933.10.29.-10.31), 『모운숙의 『리리시즘』, 시집 『빛나는 지역』을 읽고』, 『조선일보』(『김기림 전집』 2, p. 367).

17) 박용철(1934.2), 『여류시의 총평』, 『신가정』(『박용철 전집』 2, pp. 125-140).

본고는 기존 연구가 주로 민족주의에 편향되어 중요한 다른 한 축인 개인주의-센티멘털리즘을 놓쳤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초기시의 민족주의/제국주의와 센티멘털리즘을 고찰할 것이다.

모운숙의 민족주의와 센티멘털리즘은 심상지리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민족주의적 상상력은 제국의 심상지리와 인력과 척력을 형성하면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센티멘털리즘은 민족주의적인 영웅적 페르조나의 뒷면에 감추어진 나약한 개인의 감정과 욕망을 드러낸다. 따라서 본고는 심상지리의 관점에서 『빛나는 지역』의 민족주의/제국주의와 센티멘털리즘을 고찰하고자 한다.<sup>18)</sup>

18) '심상지리'는 축차적으로 '상상의 지리', 즉 주체의 상상과 인식에 의한 지리라는 의미로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된다. 넓은 의미의 심상지리는 장소, 지리와 관련된 다양한 상상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에드워드 사이드(1991)나 강상중(1997) 등의 연장선에서 탈식민주의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식민주의/탈식민주의에서 지정학적 관점이나 영토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심상지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고의 '심상지리'는 후자에 가깝다. 제국의 심상지리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구도를 "남성=식민자=제국"과 "여성=피식민자=종속국"으로 위계화하면서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저항적인' 민족주의적 심상지리는 피식민자의 주체성을 재정립하면서 심상지리를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 치하에서 민족주의적 심상지리는 제국의 심상지리와 쉽게 분리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 모운숙의 심상지리에 주목하는 이유는 작품 속의 '조선'과 '간도' 심상에 제국의 시선과 '저항적인' 민족주의의 시선, 그리고 개인적인 욕망이나 센티멘털리즘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본고의 2장에서는 '조선'을 "빛나는 지역"이라는 '약속 받은 땅'으로 규정하는 구약에 기반한 기독교 민족주의적 심상지리와 거기에 균열을 일으키는 제국주의와 개인적인 욕망을 읽어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조선을 전장으로 설정한 심상지리에 투영된 민족주의/제국주의를 고찰한다. 4장에서는 '간도'의 인식에 투영된 민족주의와 센티멘털리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 시집 『빛나는 지역』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좁은 의미의 심상지리와 관련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주식(2001), 『제국의 지도 그리기: 장소, 재현 그리고 타자의 담론』, 『비평과 이론』 6-1, 한국비평이론학회; 박진숙(2006),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와 『문장』과 기행문학의 조선

## 2. 구약적 심상지리와 기독교 민족주의

모운숙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내면화된 시인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모친 임마태의 영향으로 유년시절부터 교회에 나가며 기독교 세계관과 접촉했다. 지속적으로 기독교에 노출되다가 결정적으로 호수돈 여학교 시기에 와서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확고하게 뿌리내린 것으로 추정된다.<sup>19)</sup>

모운숙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길은 없지만, 작품에 투영된 기독교적 사고방식은 부정할 수 없다. 시적 주체는 내면화된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식민지 현실을 해석하고 낙관적 미래를 선취한다. 이러한 시적 주체의 사고구조는 당대 기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 기독교는 민족주의와 복잡한 역학을 형성하면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의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sup>20)</sup> 일제 말기 기독교가 전시체제에 동원되면서 전적으로 협력하기

표상,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학회; 구인모(2008), 『한국 근대시와 '조선'이라는 심상지리』, 『한국학연구』 2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에드워드 사이드(1991),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강상중(1997),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넓은 의미의 심상지리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정형(2008), 『에도(江戸)의 표상을 통해 본 일본인의 심상(心象)지리적 문화기층 연구』, 『일본학연구』 25,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이경수(2011), 『신동엽 시의 공간적 특성과 심상지리』, 『비평문학』 39, 한국비평문학회; 김태준 편저((2005),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1-3, 논형.

19) 호수돈 여학교 시절 모운숙은 YWCA 전국 모임 참석하고, 부흥회에 감명을 받아 흥순탁 목사의 양딸이 되는 등 기독교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기독교와 관련된 모운숙의 전기적 사실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송영순(1997), pp. 28-29, p. 35.

20) 박정신은 한국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관계를 3.1운동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그에 따르면 전자가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물림의 시기라면, 후자는 엇물림의 시기이다. 최영근은 더욱 세분화한다. 그는 형성기(1880년대-1905년), 변형기(1905년-1919년), 발전기(1920년대-1930년대 초반), 침체기(1930년대 후반-1945년)으로 나눈다. 형성기는 근대화를 매개로 기독교와 민족주의가 연결된 시기, 변형기는 민족주의 담론

이전에는 어느 정도 저항과 순응이 공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저항의 차원에서 기독교 민족주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와 이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르치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sup>21)</sup> 조선인들은 출애굽 사건이나 바빌론 포로기를 식민지 현실과 동일시하면서 기독교에서 저항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sup>22)</sup> 모운숙 초기시는 이와 같은 기독교적 저항의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

『빛나는 지역』의 기독교적 저항의 논리는 ‘출애굽 프로젝트’로 규정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노예 상태의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영도 하에 이집트를 탈출한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히브리인들은 40년이나 광야를 헤매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한다. 이러한 극적인 서사는 모운숙 시에 고스란히 수용된다. 모운숙은 ‘나일강(이집트)→광야→가나안’으로 이루어진 구약의 공간적 심상지리를 ‘국권침탈→방황→해방’의 시간적 심상지리로 전유하면서,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고 해방의 희망을 암시한다.

『빛나는 지역』에서 식민지 조선인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 광야를 건너는 히브인의 이미지와 포개진다. 「예언자」와 「그늘진 천국」에서 조선인들은 이집트(“나일강”)를 탈출하여 낡은 “수레”를 끌고 광야를 건너고 있다. 「광야소곡」에서 주체는 간도체험을 광야의 방황으로 규정한다. 그는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나그네”가 되어 광야를 방황한다(“나그네의 갈 길이 희미합니다”). 「극락수」에서 화자는 사막을 방황하며 “락원의 샘”을 찾는다.<sup>23)</sup> 「문허진성밑에서」에서 조

---

을 종교화하고 체질화한 시기, 발전기는 문화민족주의 운동과 연결된 기독교 민족주의의 전성기, 침체기는 일제가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한국기독교를 일제에 강제적으로 동화시킨 시기이다. 박정신(1997), 『근대한민국과 기독교』, 서울: 민영사; 최영근(2010), 「동아시아에서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관계: 일제 시기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7,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21) 최영근(2010), pp. 26-43.

22) 박정신(1997), pp. 66-75.

23) 사막이나 광야의 이미지와 관련된 시편으로 「광야소곡」, 「放浪-北城 c友에게」, 등이

국을 잃은(“문허진 성”) 화자는 “생명약수”를 찾아 방황하고 있다. 「극락수」와 「문허진성밑에서」에서 “샘”을 찾는 화자의 방황은 가나안을 향하는 히브리인의 광야체험과 겹친다. 시적 주체는 가나안에 해당하는 조국 해방의 비전을 “빛나는 지역”(「빛나는 지역」), “새 향토”(「그늘진 천국」), “화원”(「그늘진 천국」) 등으로 제시한다.

주체는 국토를 ‘어머님-신성한 땅’으로 그려낸다. 피식민의 현실은 “어머님의 한때 병”(「못 가오리다」)이므로 머지않아 해방을 맞으리라는 전망을 보여준다. 이처럼 모윤숙은 구약적 심상지리를 통해 민족의식을 드러낸다. 그의 기독교 민족주의는 「그늘진 천국」에 집약되어 있다.

저기 저 無窮한 나라에/ 끌어식지안은 사랑의샘이있다/ 不滅의 젊  
은 權勢 歎息없이 줄친 고평에/ 우리의 理想하든 未來郷이 있다. // 그  
곶에 슬기로운 志士의 바른저울 달여 있어/ 맑은 水晶江우에 가벼운  
그림자 치고/ 앞에 올 人生의 길을 기다리고 있나니/ 우리를 기다리  
는 동안 그 天國의 그들은 떠나지 않으리// 燦爛히 꾸민 金寶石의  
冕旒冠은/ 시달려 죽은 犧牲者의 머리 위로 날고/ 殉教者의 반열 앞  
에 莊嚴한 노래/ 새 郷土의 낡지 않을 냇을 울리리라// 나일江 언덕  
으로 始作된 때의 주름살은/ 錯亂과 矛盾의 어두운 고개를 넘어/ 고  
넓은 人生의 수레를 끄어어왔나니/ 가벼운 文化의꿈은 人間을 지금  
誘惑하도다. // 저 - 生命의 江언덕 안개 낀 樹林 새로/ 이 겨레 불으  
는 히미한 音聲/ 눈물의 젖은 그 손길 아래/ 그 말씀 들으러 귀 기우  
림입니다. // 그 天國 높은 峯 우에 先祖의 同伴들이 노래하고/ 印 찍  
은 팔독의 約束을 굳세이 豫言하며/ 잘 살아가는 子孫의 行列을 자  
랑하나니/ 先祖 모힌 天國 아침은 빛날 때도 있으리. // 오- 그러나  
할아버지 나의 先祖여/ 不吉한 安息에서 가슴 앞서하시는/ 그 발길  
그 옷자락 거니시는 그 天國에/ 愁心 낀 어두움이 그늘져 따르옵니  
다. // 목 마르신 그 애담 그 하늘에 샘 없어 그러하리/ 슬픈 그 音聲

---

있다.

그 하늘에 다른 恨 있아오리/ 오로지 病身 이 자식 歎息하시는/  
한 줄기 피스대 위한 슬픔이여이다. // 이 마당에 꽃피고 저 언덕에  
새울어도/ 하라버지 계실적 花園만은/ 拭킴언 구름새에 잠겨버렸  
읍니다/ 오호 - 生命의 燈臺는 어대 숨어 잇나이까? // 올 너머 제등  
무는 별서 많이 갔어요/ 저의 탄식도 이제는 끈쳐야겠고/ 앞내에 올  
고 흠으는시내도 쳐버려야겠어요/ 그래서 하라버지 등 위에 그들이  
가도록./ \*1933년 3월.24)

『그늘진 천국』에 나타난 모운숙의 기독교 민족주의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조선인을 히브리인과 동일시하는 선민의식이 두드러진다. 식민지 조선인의 수난은 “나일강 언덕”에서 시작하여 긴 방랑 끝에 가나안 도달한 히브리인의 수난과 포개진다(4연). 뿐만 아니라 화자는 신의 계시대신 천국에 계신 조상(“할아버지 나의 선조”)의 음성(“이 겨레 불오는 히미한 음성”)을 듣는다. 겨레의 조상들은 천국에서 식민 치하의 자손들을 굽어보며 근심에 휩싸여 있다. 제목 “그늘진 천국”은 천국에 있는 조상들의 “근심”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천국의 조상들은 “잘 살아가는 자손의 행렬”을 예견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화자 또한 해방을 예견하면서 “천국의 아침은 빛날 때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보여준다(6연).25)

둘째, 모운숙의 선민의식은 민족주의적인 국토의식과 밀접하게 연결

24) 『그늘진 천국』전문, 『빛나는 지역』, p. 26.

25) 『어머니』에는 모운숙의 선민적 혈통의식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화자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피”의식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를 드러낸다. “어머니 우리집에 도둑이 들거든/ 무어든지 다 갖어 가라하세요 /우리의재산 일흠까지라도 /다 그의 등에 실어주세요 //(중략) // 그래도 어머니 /오직 하나 빼앗기지않을거슨 /어머님마 음속에 깊이도 담긴이피는 /갈너서 보내지 말아 주시요” 『빛나는 지역』, pp. 96-97. 『빛나는 지역』에서도 “銀風의 감겨진 아름다운 福地에/ 이천만의 간-生命은 永遠히 흘러가리.”와 같이 피와 대지가 결합된 선민의식을 드러낸다. 『빛나는 지역』, p. 122.

되어 있다. 주체에게 한반도는 조선 민족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sup>26)</sup> 9연의 “화원”은 아름다운 한반도를 의미한다. 아름다운 자연은 그대로이지만 주권 상실로 인하여 “화원”은 “씻김언 구름”에 잠겨버렸다. 주체에게 “씻김언 구름”과 “그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다. 주체는 “화원”에서 “생명의 등대”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잠시 “숨어” 있다고 말한다. 화자는 제국의 어둠이 물러나고 국토-“화원”이 회복되리라는 신념을 암시한다.

셋째, 모세와 연결된 영웅의식이 두드러진다. 모운숙은 빈번하게 독립 운동가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sup>27)</sup> 이 작품은 독립 운동가의 순교 정신을 예찬한다. “시달려 죽은 희생자”(3연)는 순교한 독립 운동가를 의미한다. 3연에는 천국의 “바른 저울”이 독립 운동가의 활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장엄한 노래”가 울려 퍼지리라는 사후 심판론이 드러난다. 이처럼 주체는 독립 운동가의 희생-순교를 독려하면서 스스로도 거기에 동참하리라는 의지를 보인다(10연).

초기시의 기독교 심상지리는 당대 조선의 기독교 공동체에 널리 퍼진 민족의식을 창조적 상상력으로 변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모운숙의 기독교 민족주의가 보여준 선민의식은 이광수와 변별되는 중

26) 『뭇가오리다』에서 주체는 국토를 어머니에 비유하고 국토와 조선 민족을 모자관계로 설정한다.

“傷處난 어머니의 한때 病이려니/ 오— 잊이 이땅을 버리고가려하오// (중략)죽어도 이땅의흙을 보태사이다.” 『빛나는 지역』, pp. 9-10.

『여름밤의 기원』에서 조선의 여름 국토는 “나폴리”나 “베니스”보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선택받은 땅이다. “이다지나 아름다운 밤이 있다면/ 나폴리의 그림조각 무에 그리 燦爛하며/ 별과달이 옷적씨는 漢江이 흐르거니/ 베니스의 多事한 물 무에 그리 貪날거냐?” 『빛나는 지역』, p. 147.

27) 『피로색인당신의얼굴을』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시에서 독립투사는 “내 겨레의 동무”이자 “구조자”이다. 그는 세속적인 쾌락과 영예를 뒤로하고, “기아”, “대양”, “황야”로 표상되는 “산 世界”의 투쟁의 길을 자청한 영웅이다. 여성인 화자는 그러한 독립투사를 보조하는 내조자의 험한 길을 동반하고자 한다.

요한 지점이다.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민족의 열패감을 자극한 반면, 모운숙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20세기 초 조선의 선민의식은 제국주의적 적자생존 논리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사고방식이다. 모운숙의 선민의식과 국토의식이 고스란히 나치의 피와 대지의 사상과 겹쳐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초기시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영웅주의 또한 전체를 위한 개체의 희생-순교를 독려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제국주의의 함정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모운숙의 신앙은 어느 정도였을까.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모운숙이 맹목적인 신앙을 견제하면서 개인의 감정과 욕망을 존중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모운숙은 이화여전 재학시절 변영로의 추천으로 접하게 된 아나톨 프랑스의 『타이스』를 매우 좋아해서 몇 차례에 걸쳐 열심히 탐독하였다. 인간의 “고질적인 번뇌”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sup>28)</sup> 모운숙은 특히 파프누스에 관심을 기울인다. 『수도사』, 『빛나는 눈』 『小説 다이쓰에서』는 파프누스를 제재로 한 작품이다. 주체는 신앙보다는 파프누스의 세속적인 감정과 욕망에 공감의 태도를 보인다.

사탄의 世紀에서 쫓기여온 온 少女여/ 거룩한 사나히? 그는 여기서  
 잊지 안노라/ 어엿분 女子의 良心을 괴롭피고 눈물을 흘리게 한/  
 人間の 罪囚 그의 삶은 末路의 幻像이다.<sup>29)</sup>

나는 나를 속인 자/ 채찍과 法書로 이 맘을 拘束하고/ 뜨거운 사

28) 모운숙, 『회상의 창가에서』, 『영운 모운숙 문학전집』 6, pp. 138-139.

『타이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결한 정신의 수도사 파프누스는 계시에 따라 방탕한 무희 타이스를 교화한다. 타이스는 종교적 구원을 얻는다. 반면, 파프누스는 타이스의 사랑을 얻고 싶은 욕망의 수렁에 빠져 흥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린다. 파프누스의 극적인 변화는 인간이 결코 제거할 수 없는 본성으로서의 욕망을 보여 준다.

29) 『修道師』부분, 『빛나는 지역』, pp. 12-13.

랑을 抑制하던/ 다이쓰 나는 나를 속인 자.<sup>30)</sup>

주체는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인 사랑과 욕망의 가치를 '발견'한 파프누스의 심경을 상상한다. 『修道師』에서 파프누스는 타이스를 질책하던 자신을 “어엿분 女子의 良心을 괴롭히고 눈물을 흘리게 한” 죄인으로 여기며 자책한다. 『빛나는 눈-小説 다이쓰에서』에서 그는 “뜨거운 사랑을 억제”하고, “채찍과 법서로” 마음을 구속하면서, ‘자신을 속인 자’라고 스스로를 꾸짖는다.

『타이스』에서 타이스가 세속적인 욕망의 세계에서 신앙으로 회심한 인물이라면, 파프누스는 신앙에서 세속적인 감정과 욕망의 세계로 전향한 인물이다. 파프누스는 ‘신앙’만이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모운숙은 타이스가 아니라 파프누스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것은 모운숙이 신앙에 앞서 인간적인 감정과 욕망을 중시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기시의 구약적 심상지리는 단순히 저항적 민족주의의 산물로 환원될 수 없다. 살펴본 바와 같이 모운숙은 당대의 기독교 민족주의를 작품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 이면은 제국주의적 사고와 연결되어 되어있다. 그리고 주체는 신앙과 대조되는 세속적인 감정과 욕망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기존 연구와 달리 초기시에서도 이미 주체의 공적 사유와 사적 사유가 분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구약적 심상지리는 표면적으로 저항적 민족주의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그 배후는 제국주의와 개인

30) 『빛나는 눈 - 小説 다이쓰에서』부분, 『빛나는 지역』, p. 201.

31) 김옥성은 초기시의 기독교 민족주의를 조명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김옥성 (2013), pp. 389-398). 이 글은 그 문제의식과 연구 성과를 계승하여 모운숙 시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면모를 보다 미시적으로 고찰하여 그 공과(功過)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김옥성의 연구는 모운숙 시세계 전체를 거시적으로 고찰하면서 초기시에 나타난 공적 사유와 사적 사유의 미세한 균열을 놓쳤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기독교 민족주의에 배태된 제국주의와 세속적 욕망이라는 ‘균열’을 새롭게 밝히고 있다.

의 세속적 욕망이 맞물려 있다.

### 3. 전장의 심상지리와 진화론적 사고

19세기 후반은 제국주의의 시대이다. 제국주의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데에는 '과학'이라는 명목의(사회) 진화론이 한 몫을 했다. 제국주의는 진화론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를 통해 약소민족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국주의-진화론의 전차는 1차 세계대전(1914-1918)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지만, 진화론적 사고는 이후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조선에서 (사회) 진화론은 19세기말 근대화 담론으로 수용되었다가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약육강식·우승열패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비등(沸騰)하면서 약화된다.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진화론은 대타담론인 상호부조론, 동정과 사랑, 생철학과 정신적 생명담론 등과 공존하면서 사회발전 담론을 추동한다.<sup>32)</sup>

진화론적 사고를 비교적 일관되게 고수한 대표적인 인사가 이광수이다. 이광수의 진화론적 사고는 191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sup>33)</sup> 이광수의 진화론적 사고는 생물학적 과학, 민족개조론, 파시즘론 등의 다

32) 일제 강점기 사회진화론에 관한 글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성진(1997), 「1920년대 전반기 사회진화론의 변형과 민족개조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권보드레(2009),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운동」,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안지영(2012), 「사회진화론에 대한 비판과 '생명' 인식의 변화: 『하지광』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8, 한국현대문학회.

33) 다음과 같은 글들이 그 예이다. 「부활의 서광」(1918.3), 「신생활론」(1918.9-10), 「힘의 재인식」(『동광』, 1921.12), 「민족개조론」(『개벽』, 1922.5), 「단결공부」(『동광』, 1931.4), 「전쟁과 평화」(1933.12. 5), 「무솔리니의 첫 결심」, (1935. 7. 31.)

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광수 민족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sup>34)</sup> 1920년대의 『힘의 재인식』과 1930년대의 파시즘론이 구체적인 증거이다. 힘의 논리에 입각한 이광수의 진화론적 사고는 전쟁 미화의 양상을 띤다. 그는 『힘의 재인식』에서 전쟁을 “민족의 힘의 총합”의 발현으로 규정하고 조선 민족의 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sup>35)</sup> 『전쟁과 평화』에서 전쟁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민족이 고귀한 민족이라는 무솔리니의 주장에 공감을 표한다.<sup>36)</sup>

이광수의 사상적 그늘 아래에서 활동한 모운숙 또한 제국주의-진화론적인 사고를 보여준다.<sup>37)</sup> 특히 이광수가 보여준 힘의 논리에 입각한 전쟁 예찬을 고스란히 답습한다. 모운숙 초기시의 전쟁 미화는 표면적으로는 민족 해방을 위한 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지만 심층적인 면에서는 제국주의-진화론의 약육강식의 논리에 입각해있다.

『백마강』, 『리별-신라 백제 때 전쟁을 생각하고』, 『안해의 所願-新羅 때 將軍을 생각하고』, 『기다림-백제신라 싸움때를 연상코』 등의 작품은 조

34) 물론 『민족개조론』에서 “제국주의의 세계를 민주주의의 세계로 개조하여라”, “생존 경쟁의 세계를 상호부조의 세계로 개조하여라”와 같이 약육강식의 논리를 부정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진화론적 ‘개조’를 통하여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강한’ 조선민족을 육성하자는 진화론적 사고가 지배적이다.

35) “二 民族의 戰爭은 결국 二 民族의 이 힘의 總合의 比較다. 그런데 우리에게 正히 없는 것이 이 힘이다.”(『힘의 재인식』, 『이광수 전집』 10, p. 279).

36) “오직 戰爭만이 능히 사람의 에너지를 極度로 緊張하고 또 戰爭을 해내는 民族에게 高貴의 印을 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이 부르짖음은 다만 그의 母國뿐 아니라 世界의 많은 나라에 共鳴者를 얻는 모양이다. 空中에서는 軍歌가 들리지 아니하느냐 슬프지마는 事實이다.” (『전쟁과 평화』, 『이광수 전집』 9, p. 364).

37) 모운숙은 스캔들이 생길 정도로 이광수와 친분이 두터웠다. 모운숙, 『회상의 창가에서』, 『영운 모운숙 문학전집』 6, pp. 135-173.

모운숙은 이광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있다. 이광수가 민족적인 자기비하에 빠졌던 데 반하여, 모운숙은 (적어도 『빛나는 지역』 출간 이전에는) 구약적 세계관에 입각한 투철한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선의 고대사에서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선의 영토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이다. 시적 주체는 강자는 지배하고 약자는 도태된다는 제국주의의 논리에 착근한 심상지리를 보여준다.

萬年을나린버들 예런듯 푸르고/ 한조각 바위틈에 샘물쫓아 희맣  
 어라/ 千年의 고흔 魂은 흐릴줄이 없든가(1연)// 黃昏은 짓터가고 蘭  
 草빛도 희미한데/ 나무위의 새소리는 그슬픈 냇 曲인듯/ 愁心 뿜 怨  
 聲에 고개 숙여지노라(2연).<sup>38)</sup>

화자에게 ‘백마강’은 자연의 영원함과 인사의 무상함으로 다가온다. 1연에서 푸른 버들이나 샘물은 천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푸르고 맑다. 하지만 2연에서 알 수 있듯이 인사는 무상하다. 2~4연에서 화자는 멸망한 백제에 대한 상념에 잠긴다. 2연의 화자는 나무 위의 새소리에서 멸망한 백제 민중의 “수심 뿜 원성”을 듣는다. 이 시는 표층적으로는 자연의 영원과 대비되는 인사의 무상함을 다루고 있지만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성찰을 암시한다. 백제 민중의 “원성”은 나라를 빼앗긴 조선 민중의 심경과 고스란히 포개지는 것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백마강’의 심상지리적 의미는 ‘빼앗긴 조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빼앗긴 조국의 ‘국토’에 대한 인식은 ‘힘’을 통한 국권 회복의 의지로 이어진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의 ‘힘에의 의지’는 전쟁 미화로 나타난다.

福蘭이곱게자라 열다섯살에/ 말탄兵丁 집앞에서 처음보았네/ 썩  
 썩한 그 양자의 뒤 ㅅ 모양바라다/ 兵丁꿈만 밤마다 꾀다나요// “兵  
 丁 동무 하나만 잇스면/ 하나둘 발맞우워 練習도 하렷다/ 아이나는  
 언제나말탄 兵丁이조와/ 튼튼하게 환도찬 힘센 兵丁이”/ \* 1928年  
 10月.<sup>39)</sup>

38) 「白馬江」부분, 『빛나는 지역』, p. 107.

창작 시기로 보아 “말 탄 병정”은 일본군일 가능성이 크다. 이 시의 주인공인 “열다섯살”의 어린 “복란”은 집 앞에서 말을 탄 병정을 본 후 밤마다 병정 꿈을 꾸다. 어린 소녀이지만 무서워하기는커녕 병정의 세계를 동경한다. “튼튼하게 환도 찬 힘센 병정”은 바로 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심상지리 체계에서 국토는 전장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센 병정’과 같이 ‘힘’이 필요하다.

‘힘에의 의지’에 입각한 국토-전장의 이미지와 전쟁 미화는 조선의 고대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체에게 조선의 국토는 고대부터 약육강식의 전쟁터이다. 주체는 전쟁에 임하는 남성과 여성의 태도와 심경을 형상화 하면서 전쟁을 미화한다. 『리별』, 『안해의 所願』, 『그다림』 등은 신라와 백제의 전쟁을 통해 약육강식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약한 자는 도태된다는 진화론을 암시한다.

안해여 서름을참고 칼을 채이라/ 가장 빛난 軍刀끝헤 입을 맞오고/  
내몸에 튼튼한 갑옷을 입히라/ 싸흠없는 사나히는 비겁한 인간이니라.// 나의 아름다운 비듬이여/ 리별이 눈물저도 이길은가야하니/  
주저말고 내허리에 칼을 채이라/ 몸을빚인 사나희로 슬픔에지단말가.//  
홀노두기어려운 情드린새여/ 이몸이 못도라울지라도 설어말아/  
내몸은 핏빛 江우에 떠나려갈지나/ 祖國의빛난 언덕에 내 魂은 두고가리./ \* 1933년 5월.<sup>40)</sup>

『리별』은 출전하는 장군의 비장한 태도와 심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안해의 소원』은 전장에 출정하는 남성의 내조자로서 여성의 태도와 심경이 형상화되어 있다. 『그다림』에는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 기다리는 아내의

39) 『말 탄 병정이』 전문, 『빛나는 지역』, p. 144.

40) 『리별 - 신라 백제 때 전쟁을 생각하고』 전문, 『빛나는 지역』, pp. 137-138.

심경을 보여준다. 역사를 소재로 한 일련의 시편들은 모운숙이 한반도를 약육강식의 전장으로 인식하였음을 말해준다.<sup>41)</sup> 그러한 인식은 제국주의적 심상지리와 겹친다. 모운숙은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약육강식의 논리로 파악하고 힘과 영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은 심층적인 면에서 제국주의의 논리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모운숙의 민족주의가 제국의 계략을 간파하지 못한 피상적인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러한 피상성은 영웅의식에서도 확인된다. 전쟁 시편에서 전쟁 영웅은 남성이다. 여성은 남성의 충실한 내조자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전쟁 시편에서 주체는 남성에 순종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이상화하는 것이다.<sup>42)</sup> 『물깃는색시』에서는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전통적인 여성상이 이상화되어 있다.<sup>43)</sup> 이는 아버지와 오빠의 그늘에서 벗어난 계몽적 주체로서의 여성상을 이상화한 『그 꿈을 깨치소서』<sup>44)</sup>의 여성주의와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분열된 여성의식은 주체의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통일된 세계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당대의 피상적인 민족주의와 여성주의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빈번하게 시적 세계에 균열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41) 모운숙은 단순히 역사 속의 전쟁을 소재로 취한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입각하여 전쟁 독려나 미화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전쟁 시편에서 남성은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자 하고(“사흠없는 사나히는 비겁한 인간이니라”, “이몸이 못 도라올지라도 설어말아” 『리별』), 아내는 남편의 목숨을 건 싸움을 독려한다(“니러나 말타고 쓴살갓이 달이소서/ 오- 나는 피무든 옷자락을 닦우에서 받으리라.” 『안해의 所願』). 주체는 전쟁과 전사(戰死)를 미화, 찬양하고 있다.

42) 고대사를 제재로 한 작품은 아니지만, 독립운동을 제재로 한 『피로색인당신의얼굴을』에서도 여성 화자는 남성 독립운동가의 보조자가 되고자 한다.

43) “떠오르는샘속에 쪽박아지조넣어/ 날마다물동이 채워가나니/ 원집안식구의 生命의線을 가진/ 어엿블사 이땅의 물깃는 안악내여” 『빛나는 지역』, p. 128.

44) “돌을들어 그 꿈을깨치고/ 咀嚼받은 지난날을 記憶에서빼시와/ 아버지 옴바 그늘에서 떠나서요/ 밝혀진 眞珠를 모조리집어서/ 끝는풀무에 다시넣으소서요 1932년.” -『그 꿈을 깨치소서』.

모운숙 시에 자주 나타나는 영웅의 이미지는, 전쟁 영웅, 계몽적인 주체적 여성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영웅 이미지는,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심층적인 면에서 전쟁 영웅은 제국주의의 논리에 닿아있고, 주체적인 여성상이 가부장적 여성상과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지한 성찰의 결과물이라 보기 어렵다. 모운숙이 세속적인 감정과 욕망을 중시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영웅의식의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명성을 얻고자 하는 허영심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커진다.

초기시에 나타난 전장의 심상지리는 한편으로는 진화론에 입각한 민족의식을 반영하고 있지만, 진화론을 매개로 제국주의적 힘의 논리와 맞물린다. 뿐만 아니라 전쟁 미화에 나타난 영웅의지에는 개인적인 욕망의 그림자가 투영되어 있다. 전장의 심상지리 또한 복합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 4. 간도의 심상지리와センチ멘털리즘

모운숙은 이화여전을 졸업한 1931년 명신여학교 영어 선생으로 간도로 이주하여 1년 정도 거주한다. 22세의 젊은 여성으로서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그에게 간도 체험은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그가 머무를 당시 간도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만주사변(1931) 전후로 일제의 탄압도 거세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민족의식을 강화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간도의 교사들로 구성된 문학 모임 활동을 통해서 창작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간도에서 100여 편의 시를 쓰고 『동광』지를 통해 등단하기도 한다.<sup>45)</sup>

모운숙의 민족의식과 문학 활동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동광』지는 수양동우회의 준기관지이다. 모운숙은 『동광』지에 민족

45) 간도 체험과 관련된 자료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모운숙, 『회상의 창가에서』, 『영운 모운숙 문학전집』 6, pp. 105-129; 송영순(1997), pp. 43-60.

주의적인 작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안창호, 이광수 등과 같은 인사들과 사상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간도 체험은 모운숙이 한국 정치사와 문학사에 편입하는 데에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

모운숙은 간도에서 민족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뼈저리게 경험하였으며 많은 시를 썼다. 간도체험은 모운숙의 민족의식과 문학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건이다. 이 장에서는 간도의 심상지리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사적인 감정의 양상, 그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모운숙 시의 심상지리에서 간도는 조선의 외부이다. 간도를 체험하기 이전 작품인 『가는 이의 설움』(1927)과 『뫓가오리다』(1930) 등에서 간도는 조국의 현실을 외면한 도피처로 인식된다.

산넘어 아지랑이 고요히덮인골/ 그리운나의 냇 땅이여/ 고개밖에  
 넘어선 내발자취/ 눈물어려 나어이 떠나가리// 산너머 머슴애의 벼  
 들피리소리/ 그리운내 江山의 노래일세/ 배골코 떠나온 내창자에서  
 도/ 설어운노래가 흘러나오네// 물건너 들여오는 방망이소리/ 그리  
 운내집의 빨래소리/ 해여진옷을 걸친 可憐한신세/ 어느누가 내옷을  
 빨어주리// 고개넘어 들여오는 엄마소리/ 艱難한내집의 무죄한딸/  
 치운날 더운때 네울음소리/ 가슴앞어 내어이 떠나가리/ \* 1927년 겨울.<sup>46)</sup>

『가는이의설움』은 간도로 떠나는 이의 설움을 주제로 한다.<sup>47)</sup> 이화여전 재학 중이던 모운숙은 국토의 외부인 간도로 떠난 지인의 심경을 상상하고 있다. 화자는 국경을 넘어섰지만 간도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46) 『가는이의설움』 전문, 『빛나는 지역』, pp. 31-32.

47) 『모운숙 시전집』수록본도 크게 바뀐 부분은 없지만, “겨울 북만주에 계신 형을 위하여”라는 부기가 추가되었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이 시는 북만주에 있는 지인의 심경을 떠올리며 집필한 것이다. 『가는 이의 설움』, 『모운숙 시전집』, p. 59.

있다. 따라서 작품에서 간도의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산너머”의 모국의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화자는 모국에 대한 그리움에 사로잡혀 있다. 객지에서의 배고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 등의 감정이 그를 압도하고 있다.

『못가오리다』(1930)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민족의식에서 ‘간도’는 국토의 외부이다. 『못가오리다』에서 화자는 ‘병든 어머니’ 조국을 버리고 간도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sup>48)</sup> 그렇기 때문에 시적 주체는 간도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나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국에 집착하게 된다. 이 두 편의 시는 모운숙이 간도로 떠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간도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간도의 심상지리는 간도 체험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sup>49)</sup> 간도 체험은 오히려 모국의 외부라는 간도의 심상지리를 확정하는 계기가 된다. 모운숙은 간도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기관지 질환)에까지 부딪힌다. 그에게 간도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무엇보다도 기관지가 약한 그에게 춥고 황량한 자연 환경은 큰 장벽으로 다가왔다. 또한 모운숙이 간도에 체류한 1931년은 만주사변으로 인하여 사회·정치적 혼란과 일제의 탄압이 심해진 시기였다. 『이역단상』에서 주체는 간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조국의 저주”로 규정한다.

48) “조와도 싫어도 나의땅이요/ 못나도 잘나도 내어머니오니/ 서름과 미움받는 괴롭이 잇대도/ 傷處난 어머니의 한때 病이려니/ 오— 잊이 이땅을 버리고가려하오// 죽어도 살어도 이 터에 살으소서/ 어대들간들 便하오릿가?/ 제끼리 헤지면 남는것 갯빛 무덤/ 믿음도 希望도 다 — 깨여지러니/ 죽어도 이땅의흙을 보태사이다. \* 1930년 4월” — 『못가오리다』 전문, 『빛나는 지역』, pp. 9-10.

49) 물론 간도의 열악한 자연 환경이나 조선인의 현실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심층적인 면에서 심상지리는 극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간도 체험에 대한 주체의 반응은 공적인 민족주의와 개인적 감정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여러 시편에 지배적으로 나타나지만, 전자와 관련된 작품은 많지 않다. 어렵게 찾아볼 수 있는 작품으로 『눈보라 치는 밤』과 『피로색인당신의얼굴을』 등의 두 편 정도가 있다.

數千里 머-느길 홀노굴너와/ 바람찬빈들에 짓일게彷徨하는/ 가엾은내몸이여 서럽고나/ 내어이 이다지나 슬퍼지는고// 異域의쫓기여 온혈버슨내겨레/ 얼마나 이밤에 들우에 쓰러짓는고/ 참으려고 삼키는 눈물의즐기/ 바람찬오늘밤은 더욱이나 설고나./ \* 1931년.<sup>50)</sup>

이 시에도 이국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외로움과 두려움 등의 사적인 감정이 지배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겨레”의 현실로 확장된다. 주체에게 간도는 모국에서 ‘쫓겨난’ 혹은 ‘도피한’ 혈벗은 “겨레”가 또 다시 수난을 당하는 땅이다. 주체에게 “겨레의 수난은 독립투사의 이미지에 집약된다.

당신은 내겨레의 동무지요/ 잊퍼런 창대에 진실한 띠를 띠고/ 원갓 飾金의 灰칠한 머리를/ 힘차게 못지른 당신이지요./ (중략)/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는/ 論爭과 固執의 적은 길을/ 沈黙과 思惟로 걸어 갑시다/ 分裂과 嫉妬의 덤불새로는/ 그대의 굿세인 손에 나를 엮어 주서요/ (중략)/ 모-든거슬 뒤로하고/ 산世界 굿세인 塔 밑으로/ 피로색인 당신의얼굴을/ 가슴에안고 떠나나이다./ \* 1931년 12월.<sup>51)</sup>

모운숙은 간도에서 체포되어 쇠사슬에 묶인 독립군을 목격했다.<sup>52)</sup> 시

50) 『눈보라 치는 밤』 전문, 『빛나는 지역』, p. 68.

51) 『피로색인당신의얼굴을』 부분, 『빛나는 지역』, pp. 102-106.

52) 모운숙, 『회상의 창가에서』, 『영운 모운숙 문학전집』 6, pp. 112-113.

적 주체는 독립투사에게서 '살아 있는 영웅'의 이미지를 '발견'한다. 독립투사는 "내 겨레의 동무"이자 "구조자"이다. 그는 세속적인 쾌락과 영예를 뒤로하고, "기아", "대양", "황야"로 표상되는 "산 세계"의 투쟁의 길을 자청한 영웅이다. 여성인 화자는 그러한 독립투사를 보조하는 내조자의 험한 길을 동반하고자 한다.

'간도'라는 공간과 민족의식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작품은 드문 반면,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센터멘털리즘은 많은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호의 呼哭인가 차고매서운저소리/ 한없이밀니다 휘감기는저바람/  
어제밤도 너머무서 일즉잡는데/ 오늘밤은 잠도안와 어이새이나./ \* 1931년 겨울.<sup>53)</sup>

바람소리 들우에 해염질치고/ 비인방 설넛가슴 홀로 떠돌아/ 어둠  
우로 그물결 가엾은 생각이여/ 北城이라 밤하늘은 쓸쓸도하이<sup>54)</sup>

『북간도 바람』, 『그리움』, 『봄 찾는 마음』, 『진달래 운명하네』, 『광야소곡』 등의 간도 체험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편에는 외로움, 그리움, 두려움 등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춥고 황량한 자연 환경에서 느끼는 센터멘털리즘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간도 시편에는 이국에서 느끼는 사적이고 소극적인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전적으로 소극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역단상』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맞서려는 투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重疊한 悲哀의 서러운생각이여/ 黃色안개入빛에 길잃은 눈동자  
여/ 情깊은 모국의 품 그리움건만/ 거친北野의꽃없는 放浪웬일가(2

53) 『北間島바람』 부분, 『빛나는 지역』, p. 39.

54) 『그리움』 부분, 『빛나는 지역』, p. 43.

연)// 젊은때에 精力! 勇敢한 意志! 悲風慘雨아래라도 뒷거름치지말  
며/ 순간을지배하는 鋼鐵網을 긋세계뚜루라든/ 오! 오! 그뜨거운말  
씀이 내가슴을 울니네(6연)// 싸늘한 어두움의 노을도 사러지고/ 눈  
물겨운 외딴하늘 넓다란野原에/ 달빛은 어인일가 가도없이 홀으나  
니/ 泊의 꿈길만 찬바람의 떨고잇고나.(7연)/ \* 1931년 가을 北城에  
서.<sup>55)</sup>

『이역단상』에는 간도의 객수와 모국에 대한 그리움이 지배적인 정조  
로 나타난다. 화자는 “정 깊은 모국의 품”에 대한 그리움(2연), ‘다리가  
파열된 듯한 무력감(4연), “心臟도 찌저진듯”한 외로움(4연) 등과 같은  
소극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위축되어 있지만, “순간을지배하는 鋼鐵網을  
긋세계뚜루라든”(6연) 할아버지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투지를 다진다(6  
연). 그러나 투지는 다시 소극적인 감정에 압도되어버린다. 뒤이은 7연에  
서 “싸늘한 어두움의 노을”이 사라진 뒤에 화자는 다시 외로움과 무력감  
에 빠진다.

모운숙의 심상지리는 간도를 국토의 외부로 설정하는 피상적인 것이  
있다. 주체는 간도행을 일종의 도피로 인식한다. 간도의 자연 환경과 사  
회 정치적 배경의 가혹함을 체험하고 나서도 간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주체에게 간도의 고통은 “조국의 저주”로 다가온다. 따  
라서 간도 시편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외로움과 두려움, 무력감,  
절망감 등의 소극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체는 간도에서 고통  
받는 조선인과 수난 당하는 독립 투사를 통해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민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간도 시편에도 민족주  
의를 지향하는 공격 사유와 세속적인 감정과 욕망을 추종하는 사적인 사  
유가 공존하는 것이다.

55) 『異域斷想』, 『빛나는 지역』, pp. 45-48.

## 5. 의의와 한계

표면적으로 모윤숙 초기시의 심상지리에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색채가 두드러진다. 특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심상지리는 민족의 낙관적인 미래를 명쾌하게 제시해준다. 그에 의하면 조선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며 조선의 국토는 선택받은 땅이다. 그러한 구약적인 선민적 사고에 의하면 조선의 해방은 이미 약속되어 있다. “빛나는 지역”은 약속 받은 땅에 상응하는 조선의 해방을 의미한다.<sup>56)</sup> 초기시의 기독교에 대한 사고는 다른 한편으로 세속적인 욕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면서 공격 사유와 사적 사유의 분열을 보이기도 한다.

초기시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전장의 심상지리는 사회 진화론적인 힘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주체는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조선의 국토를 전쟁터로 설정한다. 이러한 전장의 심상은 표면적으로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색채를 띠지만, 심층적으로는 제국의 심상지리와 맞물린다. 제국의 시선에서 조선은 강대국의 ‘힘과 힘이 충돌하는’ 각축장이기 때문이다. 전쟁 시편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 주체는 영웅의식을 드러낸다. 그의 영웅의식은 민족주의적인 열정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의식 없이 세속적인 명성을 얻으려는 허영적 영웅심리의 성격도 지닌다.

초기시의 구약적 심상지리와 힘의 논리에 입각한 민족의식은 독특하

---

56) 모윤숙 시의 모세 이미지에 반영된 유대적 선민의식은 제국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없다. 선민의식에 입각한 기독교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와 많은 공분모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시의 기독교 민족주의는 심층적인 면에서 제국주의와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운동주의 <십자가>의 ‘예수’, <간>의 ‘프로메테우스’에 투영된 보편주의적 인류애는 제국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모윤숙 시의 기독교 민족주의는 저항적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의 경계가 모호함을 보여준다. 보편주의적 의식이 결여된 민족주의는 파시즘이나 제국주의의 함정을 노정한다.

거나 깊이 있는 발상이 아니라 당시 널리 퍼진 기독교 민족주의와 진화론적 강령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1920-30대 민족주의의 일면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후에서 작동하는 제국의 계략을 간파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또한 지닌다. 초기시의 선민의식이나 국토의식에 반영된 자민족 중심주의는 대안적 이념으로 새롭게 부상한 상호부조론, 민족자결주의, 사해동포주의 등과 대조되는 제국주의적인 낡은 사고방식이었다.

모운숙뿐만 아니라 당대의 많은 조선인들의 제국의 계략에 휩쓸려 낡은 민족주의를 추종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모운숙만의 한계라기보다는 시대적인 한계의 영향이 크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체는 낡은 민족주의의 한계를 투시하지 못한 채 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빛나는 지역』의 민족주의는 피상적이고 낡은 것이지만, 당대 많은 조선인들의 시선에서는 민족의식을 승화시킨 성공적인 작품이었던 것이다.

모운숙 초기시의 민족의식은 상당히 피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적 주체는 제국의 계략을 투시할 만큼 강력하게 민족의식을 밀고 나가지 못했다. 모운숙 초기시의 민족의식이 제국의 계략을 투시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문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운숙의 민족주의가 열정은 강했으나 비판의식이 약했고, 둘째로는 '민족' 못지않게 개인의 세속적인 감정과 욕망에도 큰 가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당대의 피상적인 민족주의를 작품에 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의 감정과 욕망에 관심을 기울였다. 초기시에 널리 퍼져있는センチ멘털리즘은 민족주의의 맞은편에 있는 모운숙 시학의 또 다른 축이다. 간도의 심상지리에는 그의センチ멘털리즘이 잘 반영되어 있다. 간도 체험 시편에서 민족의식과 관련된 작품은 많지 않은 반면, 대부분의 시편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두드러진다. 주체는 간도를 국토의 외부로 인식하면서

심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표현한다. 북방을 고토(古土)로 설정하는 백석의 국토 인식과 대조되는 모운숙의 간도 심상지리에 투영된 민족의식은 근시안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간도 시편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 한국 현대시에서 간도/만주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만주국 수립(1932) 이후의 일이다. 특히, 일제 말기에 활발하게 다루어진다.<sup>57)</sup> 만주국 수립 이전 간도를 소재로 한 시편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모운숙의 초기시는 '간도'를 우리 현대시에 선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성과이다.<sup>58)</sup> 소수의 시편일지라도 민족주의적인 간도 체험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간도 체험은 민족의식뿐만 아니라 모운숙 개인의 감정과 욕망에 대한 성찰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개인의 감정과 욕망이 투영된 초기시의 센터멘털리즘은 제2시집 『렌의 애가』<sup>59)</sup>에서 절정에 도달하고, 민족의식과 평행선을 달리며 유고시의 시기까지 이어진다. 또한, 사적 감정과 여성시의 미학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1930년대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빛나는 지역』의 센터멘털리즘은 시사적으로도 심장한 의미를 지닌다.

57) 간도/만주 관련 현대시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명찬(2004), 『한국 근대시의 만주 체험』,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회; 조은주(2008), 『일제 말기 만주체험 시인들과 '기억'의 계보학적 탐색』, 『한국시학연구』 23, 한국시학회.

58) 모운숙이 참여한 간도 교사들의 문학 모임 '수요회'가 '북향회'로 바뀌면서 만주 조선 문학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송영순(1997), pp.47-48).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모운숙의 간도와 백석의 북방 사이에 10년의 시간이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운숙의 간도 시편과 다른 시인들의 일제 말기 만주 시편을 단순 논리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59) 『렌의 애가』(일월서방, 1937)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서 발생하는 고통, 애상, 비애 등의 내면적 감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산문과 산문시의 경계가 모호한 작품이다. 초판에는 산문집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의 판본부터는 시집으로 규정하였다. 이 작품은 상업성이나 대중성이 높아 1978년까지 53판이 거듭되었다.

모운숙 시의 민족주의가 공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센티멘털리즘은 사적인 주체로서의 감정과 욕망을 반영한 것이다. 후자가 페르조나의 배후에 있는 모운숙 개인의 맨 얼굴에 '더' 가깝다면, 전자는 공인으로서 보여주고 싶었던 가면에 '더' 가깝다. 모운숙이 1931년 등단하여 1990년 별세할 때까지 60년의 시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 또한 전자보다는 후자라고 하겠다.<sup>60)</sup>

『빛나는 지역』은 모운숙이 25세 되던 해에 출판되었다. 이 시집에서 대단한 민족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모운숙은 당대에 만연한 민족의식을 작품으로 형상화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개인의 감정과 욕망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시적 세계를 일구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숙한 성과이지만, 당대 문학장을 고려한다면 그 성과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광수의 영향권에서 활동하면서도 민족개조론과 변별되는 기독교적 선민의식으로 민족의 자존감을 상기한 점, 우리 현대시에 선도적으로 간도를 도입한 점, 당대에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개인의 감정과 욕망의 미학화 등은 그 진정성 여부를 떠나 1930년대 시사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모운숙은 정치와 밀착된 삶을 살아왔다. 그 때문에 그의 시도 공적 담론과 결부하여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모운숙 시는 그의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 이용된 면이 적지 않다. 공적 담론에 포획된 그의 시편들에 노정된 많은 결함들은 이미 상당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사에서 모운숙이 문제적인 시인인 만큼, 그의 시가 지닌 새로운 의미를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적 담론의 이면에 가려진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감정과 욕망의 세계는 앞으로 해명해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그 부분이 시력 60년을 추동해간 본질적인 세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60) 이러한 견해는 김옥성(2013)을 계승한 것이다. 자명한 사실이지만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구분은 되지만 분리된 것은 아니다.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개념은, 선행연구들이 주로 공적 사유의 영역에 주목한 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주체의 공적 사유와 사적 사유의 길항을 살피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 참고문헌

### 【자 료】

- 김기림(1988), 『김기림 전집』 2, 심설당.  
김상용(1933.10.22.), 『영운시집 독후감』, 『동아일보』.  
모운숙(2009), 최동호, 송영순 편, 『모운숙 시전집』, 서울: 서정시학.  
\_\_\_\_\_(1986), 『영운 모운숙 문학전집』 1-8, 서울: 성한출판사.  
\_\_\_\_\_(1933) 『빛나는 지역』, 서울: 창문사.  
박용철(2004), 『박용철 전집』 2, 깊은샘.  
변영로(1933.11.8.), 『嶺雲詩集을 읽고』, 『동아일보』.  
양주동(1933. 12.), 『1933년도 시단년평』, 『신동아』.  
이광수(1976), 『이광수 전집』 1-11, 삼중당. 1976.

### 【논 저】

- 강상중(1997),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서울: 이산.  
구인모(2008), 『한국 근대시와 ‘조선’이라는 심상지리』, 『한국학연구』 2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권보드레(2009),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 운동』,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김옥성(2013), 『모운숙 시의 종말론적 사유와 자연 지향성』, 『어문학』 120, 한국어문학회.  
김효신(2011), 『1930년대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파시즘 양상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57, 한국사상문화학회.  
박성진(1997), 『1920년대 전반기 사회진화론의 변형과 민족개조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박숙자(2006), 『근대문학의 형성과 감정론: ‘감정과잉’의 문학사적 평가와 관련하여』,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정신(1997), 『근대한국과 기독교』, 서울: 민영사.  
박주식(2001), 『제국의 지도 그리기: 장소, 재현 그리고 타자의 담론』, 『비평과

이론』 6-1, 한국비평이론학회.

박진숙(2006),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와 『문장』과 기행문학의 조선표상』,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학회.

송영순(1997), 『모운숙 시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안지영(2012), 『사회진화론에 대한 비판과 '생명' 인식의 변화: 『학지광』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8, 한국현대문학회.

이명찬(2004), 『한국 근대시의 만주 체험』,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회.

장하진(1990), 『여류명사들의 친일행적』, 『역사비평』 11, 역사비평사.

조은주(2008), 『일제말기 만주체험 시인들과 '기억'의 계보학적 탐색』, 『한국시학연구』 23, 한국시학회.

최영근(2010), 『동아시아에서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관계: 일제 시기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7,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원고 접수일: 2014년 3월 28일

심사 완료일: 2014년 4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4년 4월 30일

ABSTRACT

---

A Study on the Imaginative Geography of Mo  
Yun-Sook's Early Poems

- Focusing on Nationalism, Imperialism, Sentimentalism

Kim, Ok-Sung\*

*Shining Region* is a noteworthy yet controversial collection of works. It excels the works of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female poets and helps define Mo as the first female poet in Joseon, but it has not been discussed adequately enough considering its significance. This study illuminates the facets and meanings of nationalism, imperialism and sentimentalism in Mo's *Shining Region*, focusing on its imaginative geography, and notes on the following. First, Mo's Christian nationalism, which is based on the imaginative geography of the Old Testament, is associated with imperialism and secular desire. Second, her imaginative geography of the battlefields is related to nationalism and imperialism governed by evolutionistic theories of power. Third, the imaginative geography of the Gando region bears significance as it introduces the Gando experience to modern Korean poems while it reveals problems such as Mo's superficial awareness of Korean territory and the fissur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lf. Fourth, Mo's nationalism in her early poems is old and limited in that it

---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Dankook University

fails to perceive the scheme of Imperial Japan. Although it looks resistant against colonial rule, it is in fact connected with imperialism in depth. This limitation belongs not only to Mo but to her era itself. Fifth, sentimentalism in Mo's early works represents the domain of the private poetic self. Sentimentalism reveals the inner world of Mo's private self while nationalism reflects the persona of the public self. The essence of her poems assumes more of the former. Her sentimentalism contributed to a fresh perspective on the aesthetic value of personal feelings and the works of female poets, and thus deserves more attention and further study.

